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지식재산 교육협력 간담회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7. 1.(수)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 엑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지식재산(IP)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 23.(화)~24.(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벤처투자자 IP투자 실무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초기투자 업계와의 지속적인 교육협력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교육은 엑셀러레이터 등 초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 벤처투자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며, 벤처투자기업, 기술지주회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0여개 창업투자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초기투자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자가 실제 투자 검토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IP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벤처투자자 대상 IP 교육의 정례화, 실무형 교육과정 고도화, 초기투자 생태계와 연계한 교육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초기투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 기반 새싹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IP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송성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IP투자 실무 교육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초기투자 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IP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인선 (042-601-4304)
		담당자	사무관	이해춘 (042-601-4317)